

광주시, 발코니형 빗고을발전소 보급

아파트 등에 소형 태양광설치... 올해 250가구 전기료 혜택

청년 많이 고용한 中企에 근무환경 개선비 1000만원 지원

광주시 올 특화사업 다양

광주시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발코니형 빗고을 발전소 보급’에 나선다. 청년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1000만원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20일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복지·경제·재정·환경 등 부문에서 자체 발굴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사업과 달리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특화사업이다. 대부분 사업이 광주시가 재원을 보조하는

특징이다. ‘발코니형 빗고을 발전소 보급’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가정에 도입하고, 가정에서는 전기료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에 소형 태양광(250~300W)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250가구가 보급대상이며 시 보조금은 가구당 35만원이다. 시는 태양광 시설을 가동하면 가구당 최소 3000원에서 1만원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참전유공

자의 참전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시는 기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5만원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8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일괄 인상했다. 고령유공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급여와 복지혜택이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인건비도 지급된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거쳐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인건비 5만원이 제공된다.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최근 1년 동안 청년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다.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모바일 앱’ 사업은 환경지킴이 활동을 펼친 시민들에게 오는 4월부터 혜택을 주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쓰레기 투기지역 신고, 공공시설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지급, 이를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했다.

시와 각 구청에서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무료 법률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두 차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연다.

지금까지 무료 개방됐던 승촌보 캠핑장·축구장은 유료로 전환돼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잦은 예약취소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캠핑장 요금을 1만5000원~2만원, 축구장 요금은 4만원~5만원으로 정했다.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 이번엔 선임되나

오늘부터 3차 공모

광주시가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옛 빗고을노인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를 재공모한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공모 무산에 이어 세 번째다.

대표이사 응모 자격은 지역, 연령 제한이 없다. 행정·경영마인드와 복지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 재단 운영을 위한 역량 등은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교부·

접수된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된 복수 후보에 대해 재단이사회 의결 뒤 시장이 최종 후보를 내정한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90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광주복지재단은 빗고을노인복지재단 등을 통합해 지난해 출범했으며 복지와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 운영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5개 자치구 청년 인턴 200명 선발

월 120만원 ... 8개월 근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청년 행정인턴 200명을 선발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 행정인턴을 선발해 모두 82개 사업 부문에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2월말까지 선발 과정을 거쳐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용한다. 하반기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예상하고 있다. 상·하반기 각 4개월씩 근무한다.

상반기는 광주시 30명을 비롯해 모두 111명이며 하반기는 89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취업 예정자, 공무원 임용 대기

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시청과 구청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업별 적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로 월 120여 만원의 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는다.

시는 행정인턴 참여자에게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인성, 적성검사, 모의면접, 산업현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조, 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와 5개 구청 홈페이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日 지방정부와 첫 자매결연

고치현과 ... 나라현과도 협력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전남도가 한일 국교정상화 51년만에 일본 지방정부와 첫 자매결연을 하게 됐다.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고치현과의 우호교류 관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하고, 나라현과는 역사·관광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20일 귀국했다.

4세기 무렵 백제와 활발히 교류하며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야마토국립 박물관 간 소장품 교환 전시를 비롯한 양 지역 관광분야 국제 해결을 위한 관광 업계 종사자와 공무원 간 인적 교류 및 심포지엄 개최, 올 4월 영암에서 개최되는 왕인박사축제 나라현 공무원 초청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라현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고치현 마키노 식물원 귀빈실에서 오자키 마사나오 고치현 지사와 회담을 갖고 현재 우호교류 관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고치현 의원, 기업인, 공무원 등 120여 명의 지도자가 참석한 고치현 지사 주최 환영 만찬에서 “10여년간 축적된 양 지역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오자키 지사가 전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과 장시성, 미국 오리건주와 미주리주 등 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일본 지방정부와는 자매결연 관계가 없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장로 상가 앞 눈 치우기

20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옛 무등극장 앞길에서 상인들이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광주에 내린 눈의 양은 14.2cm. 이번 눈으로 광주·전남지역 하늘 길과 뱃길이 한때 막혔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부서 칸막이 없애고 협업행정 펼친다

과제 발굴해 관련 실·과 참여 사업 추진

광주시가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특정 사업에 집중하는 협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공동체사업의 협업조직인 ‘마을정책 플랫폼’을 운영해 23개 부서와 기관에서 별도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 추진, 긍정적 효과를 봤다.

사업중복을 피하고,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부터 본격적으로 협업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협업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민선 6기 주요 정책과 사업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 극대화와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

해서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협업문화는 추진과제를 발굴한 뒤 해당 과제에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조직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예산 등 자원을 통합하고 수시로 모여 토론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이나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협업과제별로 협업책임관, 코디네이터, 간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실·국, 문화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업 시스템을 가동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실·국장과 사무관급 간부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업행정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면 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조직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383-6400

가격은 500만원대

우수한 교육환경

KTX 5분거리

광주시청 10분거리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무안공항 원할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충분한 임대수요

선착순 동·호수지정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